



고위공직자 범죄신고
02-6320-0200



제 715 호 (2023년 12월 12일 화요일)

대표전화 : 1533-1545

경찰, 내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불법행위 본격 단속

전국 경찰관서 '선거사범 수사전담팀' 가동…SNS·사이버테러 총력대응

금품·허위사실·공무원 관여·선거폭력·불법단체동원 '5대 선거범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2일부터 선거사범 단속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첨보 수집을 강화한다. 또 선거범죄 단속을 위해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 및 검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 금품수수 ▲ 허위사실 유포 ▲ 공무원 선거 관여 ▲ 선거폭력

▲ 불법 단체동원 유형의 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는 물론 배후에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자금의 원천까지 추적하는 등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강도 높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선관위 및 정당 누리집 해킹·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 테러 범죄에도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형사소송법 등 개정에 따른 경찰의 책임수사체계 구축 이후 처음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인 만큼 중추적 수사기관으로서 공명선거를 뒷받침하기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송원기 기자

與 내부서 '김여사특검법' 잇단 거부권 요구…박정하 "거부해야"

비주류 하태경도 "거부권 행사"…이준석은 연일 김여사 특검 수용 주장

더불어민주당이 12월 임시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민주당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통칭하는 '쌍특검'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 통과 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할지 묻는 진행자 질문에 "당내 의원 입장에서는 절대 저거는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특검 임명을 어떻게 하느냐는 차치하고, 일단 수사를 하면 연관되는 모든 수사를 빨아들여 빨아들인다. 심지어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부산지죽은행 것까지도 다시 뒤져 수사를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올라 출국인사를 하고 있다.

하게 돼 있는 구조"라고 했다.

그는 또 "매일 수사 결과나 진행 상황에 대해 특검 주재로 브리핑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선까지 그냥 특검 갖고 종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주류로 분류되는 3선 중진 하태경 의원도 BBS 라디오에서 "저는 특검 자체는 반대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성준 기자

하 의원은 특검 도입 반대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 때 내용상 이미 특검을 해서 탈탈 털었는데 새로 나온 혐의가 없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국민들 비호감이 워낙 높으니 그 여론에 영합하여 (특검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성에 대해 "김 여사에 대한 비호감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옳은 들판겠지만, 그래도 아무런 혐의도 없으므로 해야 된다"면서 "국가는 혐의도 없는데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연일 펼치고 있다.

그는 MBC 라디오에 나와 "특검법이 통과됐는데 거부권을 써서 재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 시점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에 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의결에 동참하지 않아서 특검법이 부결되면 너네는 김건희 방탄당이다'라고 떠들 것"이라며 "김 여사 특검에 대한 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성준 기자

신축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해야 입주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공업체가 반드시 보완 공사를 해야 한다.

보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아 입주 자체를 할 수 없게 된다.

입주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과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가 지난해 도입한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의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다. 사후 확인제는 30가구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가구의 층간소음을 제대로 차단되는지 정부 지정 기관에서 검사반도록 한 제도다. 검사 결과가 기준(49dB)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공 업체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 배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치가 '권고'에 그치기 때문에 보완 시공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게 한계로 지적됐다. 입주민들이 소송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 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못 맞추면 아예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고강도 대책을 추가로 내놓았다.

지자체가 준공 승인을 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 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아울러 지금은 건설사가 보완 시공과 손해 배상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장기 입주 지역 등 입주자 피해가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보완 시공을 손해배상으로 갈음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에게 손해 배상하는 아파트의 층간소음 검사 결과는 전면 공개한다. 임차인과 장래 이 아파트를 살 사람에게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또 지금은 전체 가구 중 2%를 표본으로 뽑아 층간소음을 검사하지만, 앞으로는 검사 표본을 5%로 늘린다.

층간소음 점검 시기는 앞당긴다.

아파트를 다 지은 상태에서 층간소음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시공이 어려운 데다, 자금력이 떨어지는 건설사는 보완 시공을 아예 못할 수도 있어서다.

지자체별 품질점검단이 공사 중간 단계(준공 8~15개월 전)에 샘플 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다.

이런 대책의 시행과 효과를 확인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는 지난해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부터 적용되기에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24~2025년 준공되는 아파트부터 영향을 받는다.

사업자는 시행 이후 지금까지 건설 기간이 짧고 세대 수가 적은 도시 형생활주택 2곳에서만 적용됐다. 2곳 모두 층간소음 기준을 통과했다.

또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보강시공 의무화와 준공 승인 불허를 위해선 주택법이 개정돼야 한다. 당장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법안 제출과 논의는 내년 6월 임기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또, 정부는 2025년부터는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매트 설치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박현준 기자

SAMSUNG 삼성물산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중동의 미래를 함께 열어갑니다

기회의 땅 중동에서 더 큰 꿈을 꾸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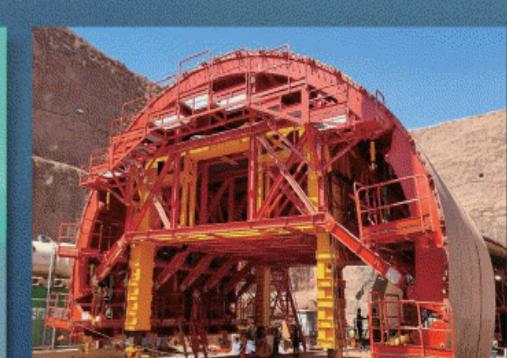
모듈러 공법, 탄소 저감 등 혁신기술을 적용하여

친환경 스마트시티를 건설하는 일부터 청정수소 생산을 통한 에너지 저감까지

중동의 미래를 여는 가슴 벅찬 도전입니다.

세상에 없던 기술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가자 대한민국, One Team KOREA!"



해수장관 후보자, 과거 음주·폭력에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경위 구체적으로 안 밝혀



11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53)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드러난 것에 대해 11일 “청문회에서 판단 받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인사 청문 준비 사무실이 있는 서울 마포구 수산물품질관리원 서울지원에 출근하면서 과거 이력이 장관 결격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웃음을 띠었던 지난 7일 첫 출근길과 달리 이날은 시종 굳은 표정이었으며 거듭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강 후보자는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면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라면서 “국민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재차 올린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해양과학 전문 연구원 출신으로 지난 2월부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T) 원장을 맡아오다 지난 4일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그는 34세 때인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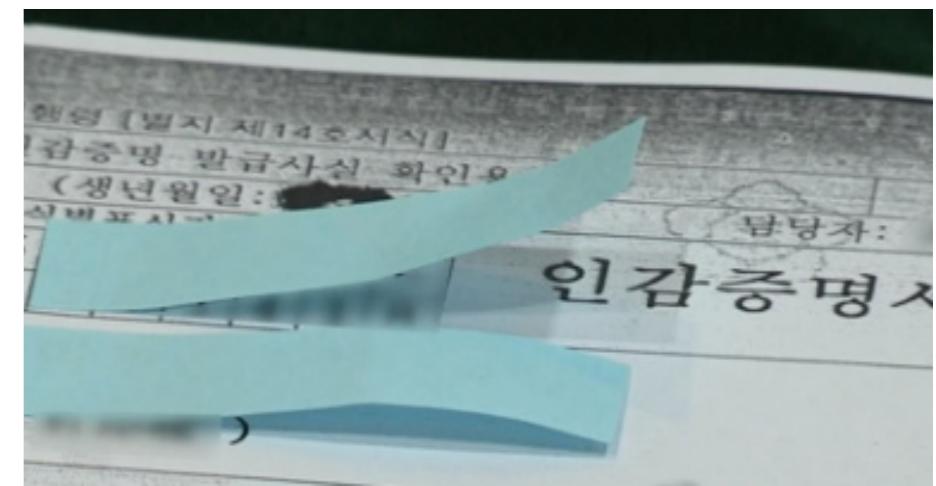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 5년 전인 1999년에는 같은 법원에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강 후보자가 제주 대대학원 석사 과정과 박사 과정에 있을 때 일이다.

강 후보자는 음주운전과 폭행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음주운전 당시 만취 상태였느냐는 질문에 “그렇진 않고 청문회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폭행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밝히는 게 맞는 거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후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후보자 지명 후 과거 음주운전 이력이 문제로 된 바 있다.

/ 송원기 기자



면허신청·경력증명용 인감증명서

‘정부24’에서 발급받는다

‘부동산 매도·금융기관

제출용’은 주민센터 가야

용도·기관을 작성하면 인감증명서 발급이 완료된다. 인감증명서 발급 사실은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에 따른 위변조 검증장치도 도입된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 또는 정부24 앱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진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3단

분할 바코드도 도입한다.

인감증명서는 본인 도장을 행정청에 사전 신고해놓고서 필요시 인감증명서 발급을 통해 본인이 신고한 도장(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작년 기준 인감증명서 발급 건수는 3천 75만통이다. 용도별로는 부동산 매도용이 148만통(4.8%), 자동차 매도용 184만통(6.0%), 일반용 2천743만통(89.2%)이다.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재산권 관련성이 높은 유형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근저당권

을 설정하거나 은행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유형으로는 보조사업 신청, 경력 증명, 임원 취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 인감증명서 유형은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경우가 해당한다.

부동산 등기, 금융기관 제출 목적으로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금처럼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24를 통한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제출

/ 최민자 기자

‘신사참배’ 비유에 뿔난 한라산신제위 “원 장관은 사과하라”



국기에 경례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앞에서 두 번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주지사 재임 시절 한라산신제 제관 참여를 거부한 일을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거부에 비유한 발언과 관련, 한라산신제를 거행하는 봉행위원회 측이 사과를 촉구했다.

김용수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위원장은 11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주 전통 문화인 한라산신제를 종교행사로 치부하고 신사참배 거부에 비유한 것은 봉행위원회와 도민 전체를 깎아내린 것”이라며 “망언을 취소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지사가 한라산신제 초현

관을 맡아 제례에 참여하는 것은 일종의 전통이므로 아쉬운 일이나 제례에 불합할 수도 있다고 이해했는데, 시간이 한참 지난 이 시점에서 원 장관이 갑자기 산신제 자체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왜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 4일 ‘경북·대구 장로총연합 지도자대회’에서 제주지사 재임 당시 한라산신제 제관을 거부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일제강점기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 신사참배는 ‘국가행사이지 신앙과 관계없다’는 말이 있었다. 하지만 신사

참배 거부로 주기철 목사는 순교했다. 산

/ 양승준 기자

법무부, 스토킹·불법체류자 관리 인력 대폭 증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불법체류자 단속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대폭 늘린다. 법무부는 11일 관보에 계재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서 관련 업무 대응에 필요한 인력 111명을 늘리는 대규모 증원 안을 공개했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 개정 스토킹처벌법 시행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관리·감독에 필요한 인력을 법무부에서 1명(6급), 보호관찰소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서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업정 단속’ 기조에 발맞춰 단속 인원도 대폭 늘어난다. 출입국·외국인청 및 각 사무소와 출장소에서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총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을 증원한다. 법무부는 이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흥명섭 기자

1통당 600원인 발급 수수료는 국가 유

공자 등의 부모 중 1명에게만 면제했던 것을 부모 모두에게 적용하고, 정부24 발급 때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15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14년 인감증

명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민자 기자

고용노동부

일터에 안심과 안정을 더하다

노무제공자 고용·산재 보험



고용·산재
보험
적용 직종

· 보험설계사 · 건설기계조종사 · 방문강사 · 골프장캐디 · 관광통역안내사 ·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대출모집인 · 방문판매원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가전제품 설치기사
· 신용카드회원모집인 · 택배기사 ·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정보통신(ICT)소프트웨어 기술자 · 방과후학교강사 (24.1부터 유치원 방과후과정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 강사까지 산재보험 적용)
· 화물차주 (건설현장 화물차주·기타운송품목 화물차주는 산재보험만 적용)

'1시간에 100만원'…학부모 등골 휘는 불법 입시컨설팅 특별점검

교육부, 교습비 초과 징수 등 단속…미등록 입시상담업체 2곳 수사 의뢰

교육부가 대입 정시모집 입시 상담(컨설팅)과 관련 한 사교육의 편·불법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함께 12일부터 내년 2월 16 일까지 불법 입시 상담·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이 '진학 상담지도 교습 과정'으로 등록한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를 초과 징수했는지, 학원 종사자의 입학사정관 경력 등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현재 각 교육지원청은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지지 않도록 분단 교습단과 상한가를 정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천원으로 정했다. 그 외 지역은 이보다 더 낮다. 대치동 학원가 기준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이 최대인 셈이지만, 실제 입시 컨설팅비는 한 시간에 30만원을 훌

쩍 넘어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초·중·고 사교육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3 학생 가운데 진로·진학 컨설팅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교육비는 평균 108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회 컨설팅에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교재비 등 기타 경비의 불법·과다 청구, 가격 표시제 미준수 등 학원 교습비 관련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일부 사교육업체가 온라인으로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하면서도 학원법상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확

인하고, 관련 업체 2곳을 고발·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및 입시 비리 신고센터'를 통해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제보 역시 내년 2월 16일까지 계속해서 접수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 학부모들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현장 교사 중심의 공공 입시 상담도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24학년도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로부터 정시 원서 접수 마감

때까지 '집중 상담 기간'을 운영해 학생들에게 전화(☎ 1600-1615)나 온라인으로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은 시도 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진학지도 전문성이 높은 현장 교사들로 구성된 대교협 상담교사단이 지원한다.

대교협 대입 상담센터는 대입 정보 포털 '어디 가?'(<https://www.adiga.kr>)에서 4년제 대학 입시 정보와 대학별 성적 산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진로 진학 담당 교사를 위한 대입 상담 프로그램도 구축해 고등학교 내에서도 체계적인 대입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부는 공교육의 입시 상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입 상담 센터 예산을 올해 27억원에서 내년 45억원으로 확대, 상담교사단을 확충하고 다양한 진로·진학 관련 자료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 김현욱 기자

진혜원 검사, 재판서 “줄리 의혹” 특정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혔다.

진 검사는 문제가 된 계시물이 지난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전에 제기된 다수의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어떤 의혹을 제기한 것인지 특정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 즉 주장의 취지를 잘 모르겠다”며 “(피고인의 의견서를 전달 받으면) 다음 기일까지 의견서를 정리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또한 검찰에 “공소사실 중에 계

시물의 어떤 부분이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다”며 다음 기일까지 공소사실 내용을 보강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진 검사는 지난해 9월 페이스북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줄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글을 올려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다. 계시를 말미에는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titute’라는 영어단어를 올려 논란



이 됐다. 진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논란이 된 계시물 속 영어단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기 위해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고 주장했다. / 광도경 기자

어떤 행사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진 검사는 검찰의 기소 사실 중 자신이 적시했다는 ‘줄리 의혹’에 관해 “범위가, 방어권 행사가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밝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인사말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

文 “대화 중단이 북핵 발전 촉진” 與 “대북정책 실패 인정하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의 핵 고도화가 북한과의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문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 핵 과학자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의 저서 '핵의 변곡점'을 언급하며 “북핵의 실체와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기울인 외교적 노력이 실패를 거듭해온 이유를 알고 싶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거나 적어도 억제할 수 있었던 결정적 변곡점마다 과도하게 이념적인 정치적 결정 때문에 번번이 기회를 놓치고 상황을 악화시켜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소개했다. 또한 “대화 반대자들의 주장과 달리 외교와 대화가 북한에 핵을 고도화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 아니라, 합의 파기와 대화 중단이 북한에 시간

을 벌여주고 핵발전을 촉진해왔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의 잘못된 대

북정책이 북한의 위협을 초래했다고 비판

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문

전 대통령이 집권 5년 내내 종전선언을 주장하며 북한을 향한 일방적 구애와 지독한 짜사랑을 보여줬다”며 “북한의 회답은 우리 국민과 영토에 대한 위협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북한은 2018년 9·19 합의 체결 이후 포문을 약 3천400회 개방하는 등 일방적으로 남북 간 합의를 어겼고, 급기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정찰위성을 발사했다”며 “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정당방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위협에 빠트리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다. 잘못한 대북정책을 풀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 이승호 기자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개방 추진…경쟁체제로 카르텔 깐다

설계·시공업체 선정권은 조달청에, 감리 선정권은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공공주택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 기업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취업 시 심사를 받아야 하는 LH 퇴직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입암 제한 등이 적용되는 LH 퇴직자 근무 기업의 숫자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LH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되고, 이 같은 부실이 전관예우 등 LH의 이권 카르텔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와 LH 혁신안 및 건설 카르텔 협파안을 마련해 왔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 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주택 사업은 LH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LH가 시행하고 민간 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LH의 독점이 사실상 ‘부실’을 구조적으로 초래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민간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공공주택 사업을 ‘경쟁 체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서 민간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또 그동안 LH가 갖고 있던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 및 관리 권한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각각 넘기기로 했다. 이를 통해 LH의 힘을 빼겠다는 것이다.

또 LH는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LH 퇴

직자 재취업 심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취업 심사 대상은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 시 부장급 이상을 지낸 인사가 취업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퇴직자의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업체 숫자도 현재의 200여개에서 4 천400여개 대폭 늘린다.

이밖에 국토부는 건설 카르텔 협파 방지 하나로 철근 누락 사태 등과 같은 부실시공 사고의 원인이 전관예우 등에 있을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5배 한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남경호 기자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현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특경법상 업무상배임 혐의…기존 합숙소 있는데 추가 계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합숙소를 임차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현욱 전 GH 사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11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이 전 사장 등 관계자 4명을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사장은 2020년 8월 기존 GH 합숙소의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도 GH 판교사업단으로 하여금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A 아파트 200.66㎡(61평) 1채를 전세



이현욱 전 GH 사장

당 합숙소와 관련해 이 전 사장을 고발하면서, 이 합숙소가 이재명 당시 후보의 대선 ‘선거 캠프’로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8월 1차 수사 결과 이 합숙소가 선거 사무소로 쓰린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A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관해서는 계속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증거와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을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 장호성 기자

Sea & Love

예금 가입으로 깨끗한 바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에 동참해주세요!

이 예금은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닷가 조성을 위해 수협중앙회 부담으로 연 평잔 순증액의 0.01%를 기금으로 조성하여 해양수산부 지정 기부처에 출연하는 거치식 예금입니다.

● 이 예금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해 1인당 보호대상 예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되며, 5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이 홍보물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기본금리 +0.2%p
[비대면 우대금리]

Sea & Love

인터넷뱅킹 www.suhyup-bank.com 고객지원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1515

Sh 수협

김기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모든 기득권 내려놓겠다”

“혁신안, 공관위 등에서 질서있게 반영…행동으로 보여드려야”



최고위 참석하는 김기현 대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1일 “저를 비롯한 우리 당 구성원 모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즉생의 각오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원회 활동 종료와 관련해 “혁신위는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을 짚고 제안해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인요한 위원장을 포함해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혁신위원 한분 한분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혁신안에 대해 “일부 현실정치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까다로운 의제가 있으나 그 방향성과 본질적 취지엔 적극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 기획단이 혁신위가 제안한 혁신 그 이상의 변화를 도입하기로 해 진행 중”이라며 “혁신위의 소중한 결과물이 당 당헌·당규에 따라 조만간 구성 예정인 공천관리위원회를 포함한 당의 여러 공식 기구에서 질서있게 반영되고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려야 하겠다”고 밝혔다.

/ 송유영 기자



금태섭·류호정 신당 창당 선언

홍익표 “12월 안으로 비례대표 선거방식 확정…병립형도 옵션”

“연동형 비례제 약속 지킬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지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내년 총선에 적용할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이달 안으로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김여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여러 선거 사무와 예비 후보자들을 고려했을 때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선거제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따른 위성정당 출현 문제와 관련해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15일까지만 합의되면 언제든 정개특위와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그런데 여당이 정개특위에서 이에 논의조차 안 하려고 한다”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

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대선 때 위성정당을 막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을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의원들과 당원들, 일반 국민에 대한 여론조사들을 바탕으로 의원총

회에서 숙의해야 할 것 같다”며 “어쨌든 연말까지는 연동형 비례제를 포함한 비례대표 선거 방식을 확정지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무조건 병립형 비례제를 전제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선거제는 수적 우위로 관철할 수 없는 만큼 병립형 논의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민주당만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을 경우 몇 석을 손해 볼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최소 5~10석은 줄어든다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불리를 떠나 이렇게 불완전한 선거제도를 방지하는 것은 정치권의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준호 기자

류호정·금태섭의 새로운선택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 논의 가능”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잡고 창당을 선언한 ‘새로운선택’이 남녀 병역 평등을 성별 간등 해결책으로 제안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 4대 의무인 병역 의무를 여성도 이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정당 또는 정파는 새로운선택이 처음이다.

금 전 의원과 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간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겠다며 ‘병역 성평등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것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제안한다’고 선언했다.

금 전 의원은 ‘최근 학계 논의를 보면 ‘여정평한 성평등’이 초기 출산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성평등을 더욱 분명히, 전면적으로 이뤄내야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병역 성평등에 대해 “가정에서 성평등을 이루려면 병역 성평등에 대해서

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분명 쉽지 않은 일지만 반드시 검토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국방 보고에 따르면 인구절벽으로 인해 병력 자원이 실제로 부족해진다”며 “분단국가 시민으로서 이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그 과정에서 여성 징병제나 모병제를 논의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현행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이스라엘, 스웨덴처럼 여성 의무 복무제를 도입할지, 아니면 병역 제도를 모병제로 전환하면서 남녀가 같은 의무와 기회를 받을지는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다룰 문제라는 얘기다.

금 전 의원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선 “국가가 육아휴직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기업은 의무적으로 그것을 실천하자는데”이며 “육아휴직 기간 정부가 통상임금을 100% 보전하겠다”고 선언했다.

/ 노승민 기자

김민석 “이낙연, 사쿠라 노선”…李 “대꾸할 가치 안 느껴”

金 “대선경선 불복 구태정치”…李 “당에 바람직한 변화 없어”



고기가 부족해지자 말고기를 소고기로 속여 파는 일이 있었고, 소고기로 둔갑한 진한 분홍색 말고기를 사쿠라나쿠라고 불렸던 데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표는 김민석 의원의 ‘사쿠라’ 비난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오전 삼육보건대에서 특강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불복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물음에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귀국 후 5개월 이상 기다렸지만, (당의) 바람직한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며 신당 창당에 더욱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이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나겠다고 한 것을 두고 친명(친이재명)계에서 ‘낙석 연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을 두고는 “일일이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다.

/ 정영찬 기자

野 김두관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최근 6년간 급여 26억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겸직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 등에서 근무하며 최근 6년간 26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고 11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밝혔다.

김 의원이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납세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법무법인 세종 등 4개 기업에서 총 26억7천598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도 이후 납세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겸직 퇴직 이후인 2013년부터 따지면 법무

을 해서 진 분 아닌가”라며 “이건 사실상 경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뒤 “민주당에서 정치하며 총리와 당 대표를 지낸 분이 제3 세력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은 자기훈선”이라고 비판했다.

사쿠라는 본래 벚꽃을 뜻하는 일본어로, 정치권에서는 주로 정부·여당과 야합하거나 변절한 정치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비속어다.

이처럼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의 사쿠라라는 용어는 2차대전 당시 일본에서 소

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급여 규모는 더 클 것이라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2013년 4월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을 떠나 같은 해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후보자는 2013년 관보에 본인과 가족 명의로 12억15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는 총 61억 7천300만원을 신고했다.

김 의원은 “검찰관 하나회”가 아니었다면 이런 고액 연봉은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각 기업과 대형로펌에서 부적절한 전관예우는 없었는지 인사청문 과정에서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병혁 기자



DB금융네트워크

검찰, 구속영장 청구 무게…송영길은 “기각 자신있다”

‘진술거부권, 구속영장 염두’ 전략 해석…측근들 진술도 고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송영길(60) 전 대표가 첫 소환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들어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주말인 전날과 이날도 대부분이 출근해 송 전 대표 조사 내용과 관련 증거를 분석 중이다.

앞서 검찰은 8일 송 전 대표 조사에서 2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 돈봉투 의혹 관여 여부,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여사연)를 통한 불법 후원금 수수 여부 등을 캐물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는 13시간 동안 이어진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이 돈봉투 의혹을 ‘헌법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로 규정해온 데다, 송 전 대표가 조사에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전 보좌관 박용수 씨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점도 송 전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4월 주거지 암수수색 직후 연락처, 통화내역, 문자 등을 초기화한 휴대전화를 제출하기도 했다.

앞서 여러 차례 ‘자진 출두’ 시도까지 하며 검찰의 빠



른 소환을 촉구하던 송 전 대표가 정작 실제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

검찰이 8개월간의 수사로 확보한 직·간접 증거에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만큼 증거에 배치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진술을 내놓기보다는 침묵을 지키며 검찰의 수사 상황을 ‘탐색’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법정에서는 먼저 재판에 넘겨진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잇따라 송 전 대표에게 불리한 법정 증언을 내놓고 있다.

윤 의원과 이정근·강래구 씨 등은 캠프에서 자금 살포가 있었다는 사실을 잇따라 인정했다. 특히 경선캠프 선거운동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강씨 측은 “형사적 책임은 총괄라인인 송 전 대표가 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돈봉투 조성자금 5천만원을 조달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 역시 이달 초 윤 의원·강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2021년 6월 경선캠프 해단식에서 “송 전 대표가 ‘여러 가지로 도와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다면 아직 송 전 대표의 관여를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증언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혹의 ‘핵심 고리’로 꼽히는 윤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관여에 대해 여전히 침묵하고 있고,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도 윤 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송 전 대표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송 전 대표가 자칫 혐의를 부인하는 과정에서 측근들을 ‘자극’하는 상황을 방지한다는 전략 차원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송 전 대표는 앞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및 기소에 대비한 ‘법정 변론’ 준비에 전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돈봉투 의혹 수사를 ‘정치적 기획수사’로 규정해온 송 전 대표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기각시킬 자신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르면 이번 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 내용과 증거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송진영 기자



“가자지구 공습 사망자 61%가 민간인…전례 없이 높아”

가디언 “유엔안보리 휴전결의안에 거부권 행사 美가 불편함 느낄 조사결과”

지난 10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중 민간인이 61%를 차지한다는 이스라엘 측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은 이스라엘 일간 하례츠를 인용해 이스라엘의 이번 가자지구 공습이 최근 몇 년간 민간인 사상자를 가장 많이 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오픈대학교 야길 레비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월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보복 공습 첫 3주간 전체 사망자 중 민간인 비율이 61%를 차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세기 모든 분쟁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평균적으로 약 절반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훨씬 높은 수치다.

아울러 이는 과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사례 때보다도 그 비율이 높다.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세 차례에 걸친 작전에서 전체 사망자 중 민간인 비율은 40% 정도였다.

지난 5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팔레



불타는 이스라엘 공습 현장에 모인 가자 주민들

스탄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PJU)의 목표물을 타격하는 ‘방阱과 화살’ 작전에서는 민간인 사망자 비율이 전체의 33%로 내려갔었다.

레비 교수는 첫 3주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전례 없는 살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규모 민간인 살상은 이스라엘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안보를 악화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광범위한 결론”이라며 “침과

가족을 잃은 가자지구 주민들은 어떤 안

보 조치로도 막을 수 없는 복수를 도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가디언은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미국은 이번 조사 결과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라고 진단했다.

가자지구에서 민간인 피해 급증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강조해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직접 민간인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인 보호를 안전 이동 통로 등을 통해 민간인을 하마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안보리에서 휴전 촉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아랍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카타르, 이집트, 요르단,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의 외무장관들은 전날 워싱턴에서 만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에게 휴전 촉구 결의안 무산에 실망감을 표하고 이스라엘 휴전을 수용토록 하는데 미국이 “더욱 광범위한 역할을 맡으라”고 촉구했다.

인권감시기구 휴먼레이츠워치의 루이스 샤르보노 유엔 담당 국장은 미국이 ‘전쟁범죄의 공모자’가 될 위험에 처했다고 비난했다.

국제앰네스티(AI) 미국의 폴 오브라이언 대표도 “이번 거부권 행사를 통해 미국 정부는 가자지구의 엄청난 민간인 고통, 충격적인 사망자 수, 전례 없는 인도주의적 재앙을 부끄럽게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현철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 행정부, 의회 승인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탱크 포탄 지원

무기수출통제법 긴급조항 발동

시급히 지원해야 할 위급 상황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이스라엘에 무기를 수출한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국무부가 전날 연방 하원에 무기수출통제법(Arms Export Control Act)의 긴급 조항을 발동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외국에 무기를 팔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긴급조항을 발동할 경우 승인 없이도 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

연방 하원은 탱크 포탄 1만3천 발을 구입하겠다는 이스라엘의 요청을 심사 중이었다.

그러나 긴급 조항이 발동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즉시 이스라엘에 포탄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국무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해 의회 승인을 건너뛰고 중동 국가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 시인 지난 2019년 이후 처음이다.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긴급 조항을 발동한 배경은 의회의 심사가 길어질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과정에서 가자지구 민간인의 희생이 늘면서 여당인 민주당 일부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가 긴급 조항을 발동하면서까지 신속한 무기 판매를 결정한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 입장이 확고하다는 방증으로도 해석된다.

국방부는 “시급하게 포탄을 지원해야 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정은우 기자

대만 대선 ‘박빙’…집권당 후보 37.8% vs 제1야당 후보 32.6%

“제1야당 지지자 투표참여 높은 40세↑ 많아 최종 득표 차 크게 안 날듯”



허우유이(국민당)-라이칭더(민진당)-커원저(민중당) 총통 후보(왼쪽부터)

내년 1월 치러지는 대만 총통 선거(대선)를 한 달여 앞두고 독립 성향 집권당과 친중 제1야당 후보 간 지지율을 격차가 여전히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경제일보 등 대만언론에 따르면 대만 인터넷 매체 ‘미려도전자보’가 지난 6~8일 20세 이상 성인 1천2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전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샤오메이찬(선) 후보가 37.8% 지지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총통·자오사오강 부총통 후보(32.6%)에 앞섰다.

이번 조사 표본 오자는 95% 신뢰수준

에 ±2.8% 포인트(p)여서, 오차범위를 약간 벗어난 우위였다.

민중당 커원저 총통·우신잉 부총통 후보 지지율은 17.3%로 두 후보와는 여전

히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직전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라이·샤오 후보 지지율이 2.7%p 하락한 반면 허우·자오 후보와 커·우 후보는 각각 1.8%p, 1.0%p 각각 올랐다.

대만 언론은 이같은 결과가 라이 후보 고향 집에 대한 불법 건축 논란과 허우 후보의 청년 주택 구매 정책에 대한 관심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우즈자 미려도전자보 회장은 최근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에서 야당 국민당 후보 지지율이 민진당 후보 지지율보다 낮지만, 국민당 지지자 대부분이 40세 이상으로 전통적으로 투표 인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40세 이상 유권자 투표율이 보통 80%대, 20~40세 투표율이 대체로 50% 이하므로 실제 투표에서 최종 득표 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번 선거가 “아마도 50만 표 내외로 승부가 갈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대만언론은 중앙선거위원회가 오는 11일 선거 기호를 추첨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신재일 기자

호주, 이민자 폭증에 새정책 예고…‘학생 비자’ 노동자 단속할듯

호주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이후 이민자가 급증하자 이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겠다며 새로운 이민 정책을 예고했다.

10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앤서니 엘버니지 호주 총리는 전날 시드니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민 시스템이 이미 망가졌으며 국가를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민자 유입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순 이민자 수는 약 40만명에 달했으며 올해는 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민자 중에서는 학생 비자로 들어오는 유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 호주 정부는 지난 회계연도(2022년 7월~2023년 6월)에만 약 52만1천 개의 학생 비자를 발급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완화로 2년 만에 국경이 열리면서 일시적으로 입국자가 늘어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올해 더 많은 유학생이 들어오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주택이 부족하고 임대료가 치솟는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지난 7월 호주 공공문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기준 도심지에 새로 공급된 주택의 70%를 유학생들이 차지했다. 또 2025~2028년까지 호주에 새로 공급되는 주택의 약 4

만 세 25만3천 가구의 주택이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다.

호주 정부는 유학생 수를 제한하기보단 학생 비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체류 비자로 악용되는 것을 막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더라도 핵심적으로 주 24시간을 근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저소득 국가의 경우, 학업이 아닌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생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상당수라면 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엘버니지 총리도 학생 비자로 입국해 불법 노동을 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많은 사람이 호주 국익과 관계없는 방법으로 입국하고 있다. 이를 단속하지 않는 것은 이웃 국가나 호주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 홍은희 기자



호주 시드니 공항



친환경 에너지 전문기업 종합사업회사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너지와 하나가 되어 더 밝고 더 따스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posco
international with POSCO



금융으로
만나는
새로운 세상



지금이, 제철이다



IBK기업은행
IRP

올해가 가기 전! 연말정산



꿀맛 환급을 놓치지 마세요!



비대면 개설 시 수수료 평생 0원

i-ONE뱅크, 인터넷뱅킹으로 신규가입 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무료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최대 148만 5천원 세액공제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최대 16.5%,
148만 5천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고금리 퇴직연금 ELB 출시!

원리금 보장, 중도해지 시에도
원금손실 없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의필 제23-04295호(2023.11.23 ~ 2023.12.31)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3-5462호(2023.11.17) [유효기간: 2023.12.31] ※ 자세한 문의는 거래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66-2566)로 문의 ※ 개인형IRP는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5천만원까지(운용회사별 합산) 예금자보호 ※ 개인형IRP에서 운용하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님 ※ 투자전 설명 청취 및 상품설명서·약관 필독 ※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개인형IRP 연금 외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부과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 향후 변동 가능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 유의사항>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원금지급형으로, 투자자 성향은 저위험(안정추구형)으로 분류 ※ 퇴직연금 파생결합사채(ELB)는 개인형IRP 계좌에서 보유 중인 현금성 자산으로만 예약매수 가능 ※ 예금자보호법상 보호상품이 아님 ※ 자산기격 변동, 발행회사 신용위험, 조기종결 및 중도상환 위험, 세제 및 법률상 위험 등에 따라 원금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 발행사 IBK 투자증권(AA, 2023.8.29, NICE 신용평가)의 신용위험에 따른 원금손실 가능 ※ 청약의 권유는 예비·간이) 투자설명서에 따름 ※ 수익률은 조건 충족 시 최대 수익률에 불과, 수익률 달성 비보장, 투자전확인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한 중도상환 시 원금손실 가능 ※ 원금 부분 지급이나 원금지급 상품의 경우 중도상환 시 최대 손실율 초과 가능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제3국 차량용 요소 5천t 추가계약...확보량 4.3개월분 늘어

정부 “전국 97% 주유소서 요소수 정상 판매, 안심하고 필요량만 구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서울 양천구 소재 주유소를 방문해 요소수 재고를 점검하고 있다.

베트남에서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새 계약을 체결하는 등 현재 업체들이 희망하면 중국산보다 10~20% 높은 가격이지만 제3국에서 요소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중국산보다 비싼 제3국에서 기업들이 요소를 살 때 드는 추가 비용을 지원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부와 환경부는 합동으로 오는 11~29일 화물차 이용량이 많은 전

국 고속도로와 물류기지 인근의 약 50개 주유소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가수요 방지를 위해 차주 단체와 주유소 등에 1회 요소 구매 수량 한도 설정 등과 같은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력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합동 현장 점검을 통해 차량용 요소 수사기 방지를 위한 판매 물량 제한 및 요소 가격 안정을 위한 주유소 사업자들의 협조를 당부해 나가기로 했다.

/ 김관우 기자



컨디션 스틱

‘엔데믹 후 첫 연말연시’ 숙취해소제 대전

술자리가 많아 숙취해소제가 잘 팔리는 연말연시에 맞춰 제약사들이 새로운 맛과 제형을 추가하며 진열을 가다듬고 있다. 특히 올 6월 사실상의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 이후 맞는 첫 연말연시인 만큼 매출에 대한 기대감에 찬 모습이다.

10일 제약 업계에 따르면 HK이노엔은 최근 젤리형 숙취해소제 ‘컨디션 스틱’ 신제품으로 자두맛과 망고맛을 출시했다.

성수기 시즌에 맞춰 맛 종류를 기존 컨디션 맛과 그린애플 맛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한 것이다.

컨디션 스틱은 작년 3월 출시돼 올해 10월까지 3천600만 포 이상 판매된 히트 상품이다. 컨디션 환과 스틱은 국내 비음료 숙취해소제 시장에서 올 3분기 기준 약 40%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HK이노엔 관계자는 “컨디션 스틱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고객의 취향을 반영하고자 새로운 맛을 개발했다”며 “컨디션 제품군이 6분기

연속 분기 매출 150억원 수준을 달성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치 회복을 넘어 성장하는 추세인 만큼, 신제품 출시와 맞물려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젤리형 제품이 인기를 끌자, 조아제약도 기존 음료 형태의 ‘조아 엉겅퀴 골드’에 더해 젤리 타입의 ‘조아 엉겅퀴 숙취해소 젤리’를 출시했다.

종근당도 최근 젤리 타입 숙취해소제 ‘깨노니 스틱’ 배사과맛과 납작복숭아맛을 출시하며 젤리형 숙취해소제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숙취 효능에 관한 제조 공법 특허를 받은 노니트리가 이 제품의 주된 원료다.

동아제약은 ‘모닝케어’ 브랜드 확장에 나섰다. 간 보호 건강기능식품인 ‘모닝케어 간 솔루션’을 지난달 출시한 것이다.

한독도 숙취해소제 ‘데디큐’의 매출이 팬데믹 시기와 비교해 올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젤리형 신제품을 출시하고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양희진 기자

이란드,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투자상담회

벤처 중국 진출 지원

이란드그룹은 이란드차이나가 지난 4~6일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투자상담회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상하이 이란드 E-이노베이션밸리에서 진행된 이번 투자상담회는 잠재력 있는 한국 벤처기업에 중국 진출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제11차 경제안보 핵심 품목 테스크포스(TF) 회의’에서 3.7개월 사용분의 차량용 요소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더 늘어났다.

업계에 따르면 한 국내 업체가 최근 베트남에서 산업용 요소 5천t을 들여오는 계약을 새로 체결했다.

이란드차이나는 중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은 대표적인 사례로, 내년

부터는 중국 시장에서의 비즈니스 노하우를 한국 벤처기업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상하이의 이란드 E-이노베이션밸리에는 연말부터 이란드차이나본사와 쇼핑시설, 한국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센터 등이 자리 잡을 예정이다.

이란드차이나 투자운영부문 박정근 이사는 “이란드는 상하이시 민항구정부의 공식인증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 파트너로 한국의 우수기업들을 상하이에 유치하는 교교 역할을 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한중기업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박소희 기자

이미경 CJ ENM 부회장, ‘세계 엔터테인먼트 여성 100인’ 선정

아시아 최초 3년 연속 이름 올려…“한국 콘텐츠 글로벌화 주역”

이미경 CJ ENM 부회장이 미국 대중문화 전문 매체 할리우드 리포터가 발표한 ‘2023 엔터테인먼트 여성 100인’에 선정됐다고 CJ ENM이 10일 밝혔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해마다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남긴 업적과 리더십 등을 평가해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00명을 선정해왔다. 이 부회장은 3년 연속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시아에서 이 같은 사례는 처음이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 부회장은 한국 영화와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끈 주역으로, 미국 아카데미 영화박물관 필리상과 국제 에미상 공로상을 수상했다”



며 그를 선정한 이유를 밝혔다.

이 매체는 이 부회장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은 영화 ‘페스트 라이브’에도 주목했다. 한국계 캐나다인 셀린 송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어린 시절 헤어졌다가 20여년 만에 미국 뉴욕에서 만난 남녀의 이

야기로, 내년 상반기 국내 개봉 예정이다. 이 작품에 대해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 부회장이 이끄는 한국의 막강한 엔터테인먼트사(CJ ENM)가 태평양을 건너 현지 영화 제작에 진출한 유의미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 부회장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024년은 할리우드가 전 세계 관객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로 기득 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에는 ‘2023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시상식’에서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관문화훈장을 받을 예정이다.

/ 권오성 기자

‘자금난’ 원전업계에 계약금 30%까지 선급금 풀다

신한울 3·4호기 보조기기 업체에 특례…내년 상반기까지 1조 누적집행 기대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보조 기기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맺은 업체들이 계약금의 30%까지 선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탈원전 정책 여파로 오랫동안 일감이 크게 줄어 자금난이 심각해진 기업들의 단기 자금 사정에 숨통을 트워주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기자재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한울 3·4 보조 기기 계약 체결 즉시 계약 금액의 30%까지 선금으로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선금 특례 제도를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규정상 한수원은 원전 보조 기기 납품 업체가 계약 이후 납품을 시작하고 나면 당해 납품 예정 금액의 7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전체 원전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납품된다. 많은 업체가 계약 체결 후 길게는 2~3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납품을 시작해 그전까지는 선금을 받을 길이 없었다. 원전 보조 기기는 원자로, 증기 발생기 같은 원전 주 기기를 제외한 밸브, 배관, 펌프, 케이블 등 나머지 모든 품목을

맡았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에는 11조7천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된다. 이 중 주기기 계약 규모는 2조9천억원, 보조 기기 계약 규모는 1조9천억원에 달한다.

산업부는 선금 특례 제도 도입으로 이미 공급된 자금을 포함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자금이 업계에 총 1조원 이상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런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원전 생태계로 공급되는 기자재 일감에 계약 즉시 선금을 지급하는 특단의 선금 특례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정부는 2032~2033년까지 경북 울진군 북면에 각각 1천 400㎿가와트(MW)급인 신한울 3·4호기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최용민 기자

2023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 마켓

11.24 - 12.25 | 잠실 롯데월드타워 아레나 광장 | 오전 10시 30분 - 오후 10시

연장 영업시간 안내 | 서울 및 수도권 전철 11월 매주 금 - 일 오후 8시 30분까지



LOTTE
DEPARTMENT STOR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따져볼수록 절세도 수익

당신의 개인연금
NH농협은행 IRP로 더 든든하게

NH농협은행에서
IRP 가입하기World EXPO 2030
BUSAN, KOREA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NH농협은행이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IRP 절세혜택으로 매년 수익을 쟁기세요



퇴직연금 수익률관리센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로 든든한
고객 맞춤형 노후 파트너



퇴직연금 전용 콜센터
상품 안내 및 운용 관리까지 도와주는 콜센터
12년 연속 우수 콜센터 선정



은행권 전국 최다 점포 운영
전국 1,072개 지점에서 퇴직연금 관련 전문 상담 가능
[23. 2분기말 기준, 출장소 포함]

※ [DC/IRP] 이 퇴직연금은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 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행은 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 방법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하시기 전 반드시 영업점 직원으로부터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펀드)에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 대상, 환매 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해외투자상품의 투자는 환율변동 및 투자 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경제 상황 등의 위험으로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수익률은 해당 운용관리기관을 통해 운용 지시하는 사용자 및 가입자의 운용 성과이며, 해당 운용기관의 직접적인 자산운용 결과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6.5%)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고세 기준 및 고세 방법은 환후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담당 부서 : 퇴직연금부] 준법감시인 심의필 : 2023-5024[2023.11.20~2024.11.17]

NH농협은행

내년부터 지역 빈집 철거 등 본격 정비…활용 방안도 모색

제주서 ‘중앙지방정책협의회’…“빈집이 지역 잠재력 끌어내는 자산 돼야”

정부가 내년부터 지자체와 함께 본격적인 빈집 철거 등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빈집 철거 등 관련 사업비 50억원을 반영했다. 올해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2024년 1월부터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빈집 활용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지자체별로 빈집을 활용해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 사례도 공유됐다. 서울시는 올해 10월 빈집 활용 아이디어 시민 공모전을 열고 우수작 24건을 선정해 시정에 반영한 일을 소개했다.

경기도는 빈집을 매입해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를 구축한 사례를, 전라남도는 빈집을 리모델링해 갤러리로 활용하거나 반값 임대한 사례를 각각 제시했다.

회의에는 도시계획 전문가인 이지은 박사를 초빙해 조속한 빈집 정비 방안과 무허가 건축물의 합법 건축물 유도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9일에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제주 지역에 방치된 빈집 활용 우수 사례 현장을 함께 찾았다.

이 장관 등이 방문한 ‘북촌포구집’은 주 다자요가 관리가 어려운 집을 10년간 무



행정안전부는 8일 제주도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빈집 활용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상임대 받아 지역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숙소로 리모델링한 공간이다.

방치된 빈집을 새로운 공간으로 구성해 지역 일자리와 수익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례로 주목받았다.

이 장관 등은 일과 휴식을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시설인 제주 ‘질그램인센터’도 찾아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이 장관은 “빈집 활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점이 인상 깊다”며 “지역쇠퇴의 상징이었던 빈집이 지역의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자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성공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꽈도현 기자



‘제10회 해운대 빛 축제’

부산 해운대 관광객 다수는 ‘수도권’에서

20대는 광안리 선호

온 관광객으로 확인됐다.

해운대시장, 해운대 해수욕장, 마린시티, 해리단길, 달맞이 고개 등 해운대 지역은 서울·경기지역 방문객이 40% 이상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10~30대, 50대는 1순위가 서면이었고 40대는 해운대시장, 60대 이상은 자갈치·국제시장으로 확인됐다. 해운대와 광안리 대표 해수욕장 간 대결에서는 해운대 해수욕장 간 대결에서는 해운대 방문객 252만명보다 많았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해운대를 찾은 관광객이 광안리보다 많았지만 유독 20대에서는 광안리 방문객이 116만5천여명으로 해운대 해수욕장 방문객 79만6천명을 크게 앞질렸다.

20대 방문객은 광안리 전체 방문객 비율의 46%를 차지하고 있었고, 30대까지 포함할 경우 66%에 달해 광안리가 젊은 층이 매우 선호하는 곳이라는 게 통계로도 확인됐다.



예금과 주식 사이
그곳에,
채권이 있습니다

전국 여성 경영자 1천명, 전남 진도에 모인다

전국의 여성 경영자(CEO) 1천여명이 전남 진도에 모인다. 10일 진도군에 따르면 ‘2023 전국 여성 경영자 경영연수 행사’(이하 여성경영자 연수)가 11일부터 이틀간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여성 경영자 연수는 전국 여성 경제인들의 경영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1999년부터 열린 국내 최대 여성 경제인 교류 행사다.

진도군 후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관으로 여성 경영자 1천여명이 참석한다.



즐겁게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행사 기간 여성 경영인들이 즐겁고 안전한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진도 투자유치, 관광 및 농수산물에 대한 수요를 맞추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두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손현주 기자

모바일 여권으로 세금환급부터 결제까지…‘스마트관광 서울’ 앱

서울시 지원 스타트업, 외국인 관광객용 앱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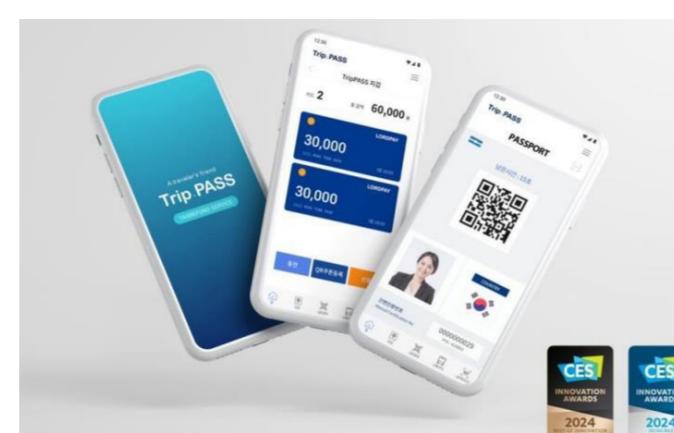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신분확인부터 세금 즉시 환급, 교통카드, 모바일 간편 결제 등 각종 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2019년 공모전에서 선정된 국내 최초 모바일 여권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로드시스템’(LORDSYSTEM)의 서비스 영역 확장과 기술 고도화를 지원해왔다.

로드시스템은 기존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외에 외국인 관광객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 ‘트립패스’(TripPASS)를 개발하고 서비스 영역을 대폭 확대했다.

외국인 관광객은 트립패스 앱 내 생성된 모바일 여권으로 실물 여권 없이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신분 확인이 필요한 카지노나 사후면세 가능한 매장에서 세금을 환급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세븐리틀 카지노(코엑스점·옹산점)와 롯데 면세점은 자체 앱과 로드시스템의 모바일 여권 기술을 연계해 간편출입 인증과 세금 즉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모바일 여권을 기반으로 자동 생성되는 선불카드를 본인 신



용카드로 충전하면 CU편의점과 사후면세점 매장에서 세금 즉시 환급과 모바일 결제도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에는 현대백화점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GS25 편의점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앱의 선불카드에 포함된 교통카드로 공항철도, 지하철, 시내 버스, 택시 등 국내 모든 교통시설을 현금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앱은 구글 플레이(안드로이드)와 앱 스토어(아이폰)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앱 스토어는 내년 1월 말에 기능이 확장된 새 버전의 앱이 출시될 예정이다.

/ 남유정 기자

강원도, 청년·스마트가 함께하는 농업의 미래 워크숍 개최



강원도형 10축형 평면수형 적용 재배한 사과

강원도는 청년 농업인 등과 미래 농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워크숍을 개최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청년 농업인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과 스마트가 함께 하는 강원 농업의 미래농업 실현’을 주제로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최태영 도 농정과장이 ‘강원 미래농정 2040’을 발표하고 전국 9개 광역자치단체를 제치고 최종 선정된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사업’, 평창·태백 스마트팜 우수사례, ‘다축형 평면수형’ 기반 스마트팜 조성 사례를 공유한다. 또 도내 미래 농업의 발전 방안을 탐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어진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고령화,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비해 스마트농업과 그린바이오 등 농업 분야의 새로운 이슈를 이해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노건우 기자

알파 앱
온라인에서 쉽고 간편하게
채권 매매하세요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채권>에 대하여 신한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기 권리가 있으며, 투자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채권>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채권은 발행사의 신용등급 하락시 원금손실 발생이 가능하고, 발행사의 파산·부도시 원금 100%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격등급은 AAA/AA/A BBB 각 +0~-순으로 구분) * 채권은 시황 및 경과기간 등에 따라 수익률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한투자증권 법정감사인 심사필 제23-0133호(2023년 2월 3일 ~ 2024년 2월 2일)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0363호(2023년 2월 06일 ~ 2024년 02월 05일)

상담전화 : 1588-0365 | www.shinhansec.com

변동성 높은 투자환경
주식도 꺼려지고, 예금도 꺼려지는 시장상황
안정성과 수익성을 추구하는 주목할 만한 투자 트렌드, 채권!

국공채, 우량채권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시작하세요!

신한투자증권

SAMSUNG

* 맞춤청정 AI+·학습된 실내외 공기질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품이 깨져 있을 때에도 10분마다 제품 내 센서 동작 및 공기질을 예측하여 미리 ON 동작·실외 공기질은 지역별 공기질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한국표준협회 주관 AI+ 인증 취득 - 맞춤청정 AI+ 기술에 대한 제품 소프트웨어 품질을 인증 취득(한국 국제 표준·ISO/IEC 25023:2016)
* 맞춤청정 AI+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초 1회 SmartThings에서 '안공자능 청정'으로 설정 필요
* SmartThings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SmartThings 앱 설치 및 연동,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합니다.

**BESPOKE 큐브™ Air****가전을 나답게.**

세계가 주목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핵심은…누구나·협업·관계

선별 복지에서 보편 복지·지역사회 협업·공동체 회복 성과



국제도시혁신상 수상

민선 8기 광주시 브랜드 정책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국제적 권위의 도시 혁신상을 받으면서 대안적 복지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정책으로 지난 7일 세계 지방정부 연합(UCLG) 등이 주는 제6회 국제도시 혁신상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서울시, 서울 송파구에 이어 세 번째로 지방 도시 가운데는 첫 수상이다. 광주시는 2회 때 탄소은행 제도로 15위 안에 들었으나 본선에는 진출하지 못했다.

전 세계 24만개 도시가 가입한 최대 국제기구인 UCLG의 주목한 이유는 뭘까.

광주시는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는 '보편성', 지역사회가 함께 이뤄낸 '협업', 끊어진 공동체의 연결로 실현한 '관계 돌봄' 등 세 가지 열쇠 말을 제시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선별 주의 방식인 기준 제도와 달리 질병, 사고, 노쇠, 장

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연령, 소득 등에 상관없이 시민 누구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초고령 노인, 심한 장애인 등에게는 먼저 찾아가는 의무 방문으로 신청주의의 한계도 뛰어넘었다.

지난 4월 서비스 시작 이후 9개월 동안 의무 방문은 1만2천376건으로 시민 신청(1만434건)을 웃돌았다.

시, 자치구, 시민단체, 전문가, 일대일 사례관리 담당 공무원(케어 매니저), 어려운 이웃을 찾아내는 시민까지 도시 공동체의 협업이 있기에 제도는 안착할 수 있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97개 동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368명을 케어 매니저로 배치하는 등 조직 개편과 재정 지원이 어우러진 성과인 '관계 돌봄'에 시민 참여가 더해져 끊어진 공동체를 잇는 '관계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엿봤다.

시상식 참석을 위해 중국 광저우를 찾은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9일 현지에서 온 열의자 설치는 기존에는 자치구별 자체 사업으로 추진해 특정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시는 서울 전역에 온열의자를 설치하기 위해 전 자치구에 예산을 지원했다. 가로변 버스 정류장의 경우 올해에만 25개 자치구에 약 45억원의 시 예산을 지급했다.

신규 설치되는 중앙차로 정류소 온열의자 상판부에는 시민의 하루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감성적 문구와 디자인이 적용된다. 직장인 밀집 지역인 여의도 환승센터에는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 시장 주변인 청량리 환승센터에는 자영업자를 위한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다. 지역 특성에 맞춘 새로운 '핀'(Fun) 디자인도 시범적으로 선보인다.

/ 송원기 기자

서울시, 버스정류소 온열의자 설치 전역 확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도 따뜻하고 안전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내 온열의자를 대폭 확대 설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올해 시내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1천241개가 추가 설치해 총 4천 200개 승차대 중 3천433개에 온열의자를 설치했다. 설치율은 81.4%다.

또 중앙차로 21개 정류장(천호대로 12개·청량리 버스환승센터 5개·여의도 환승센터 4개)에 107개의 온열의자를 추가 설치했다. 이로써 중앙차로 승차대 937곳 가운데 425곳(45.4%)에 온열의자 설치가 완료됐다.

내년에는 이용 승객수가 많은 도봉·미아로, 강남대로 등 512개 승차대 전체에 온열의자를 설치할 계획이다.

/ 황선주 기자



경기 중·고교 내년부터 무상 체육복 지원 도의회 예산심의·복지부 협의 남아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교육 협력 사업으로 내년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무상 지원하기로 했다.

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일 협의를 통해 '경기도 중·고교 교복(생활복·체육복 등) 통합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도내 중·고교 신입생 26만8천명의 교복·생활복·체육복 구입비를 1인당 40만 원씩 통합 지원하는 것으로, 종전에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 30만원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해 체육복 또는 생활복 중에서 학교가 자율로 선택해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총사업비 1천72억원은 도교육청이 50%(536억원), 도와 시군이 25%(268억원)씩 분담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도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이 반영돼 확정되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달까지 무상 체육복 지원 시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 이영민 기자

지난달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무상 체육복 사업비 67억원(총사업비의 25%)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2019년부터 지원하던 교복 지원금(1인당 30만원) 외에 체육복 지원금(1인당 10만원)을 신규 편성한 것이다. 31개 시군도 같은 금액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와 달리, 도교육청은 종전 무상 교복 사업비만 편성하고 무상 체육복 사업비 134억원(총사업비의 50%)을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체육복 업체 선정과 보건복지부 협의 등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예산 지원 시 학교 현장의 업무가 늘어나 교직원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는 만큼 2025년부터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이에 무상 체육복 지원을 공약사업으로 추진해온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만 지원하더라도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실무 부서에 주문했다.

/ 이영민 기자



이철규 "동해선 KTX 첫차·막차 증편…관광객·주민 편의 증대"

첫차는 7시 15분으로 당기고, 막차는 오후 8시 15분으로 늘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회의원은 오는 29일부터 동해역에서 출발하는 KTX-이음 첫차와 청량리역에서 출발하는 막차가 매일 한편씩 증편 운행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주중 동해역을 출발하는 상행선 첫차는 오전 10시 5분이었으나 앞으로는 오전 7시 15분에 출발해 청량리역에 9시 20분에 도착하는 열차가 추가된다.

서울역을 출발하는 막차 시각은 오후 6시 31분이었으나 청량리역에서 오후 8시 15분에 출발해 동해역에 10시 25분에 도착하는 열차가 증편된다.

그동안 애매한 첫차·막차 시각 탓에 관광객 유입이나 업무용으로 이용하기에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탓에 지역 시민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배차 시간 변경을 요구해 왔다.



KTX, 동해까지 연장 운행

이철규 의원은 "관광객 유입과 지역사회 발전이라는 KTX 개통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의한 끝에 증편을 이뤄냈다"고 말했다.

이어 "편의 증대를 위해 증편 열차의 시·종착역을 내년 상반기 내에 서울역으로 변경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규 투입 열차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론코로일과 코레일록을 통해 예매 할 수 있다. 한편 태백선 ITX-마음 열차도 정차역을 일부 조정하고 운전 시간 조정을 통해 청량리~태백 소요 시간이 3시간 6분에서 2시간 54분으로 12분 단축된다.

/ 윤형철 기자

인천경찰청, 연말연시 범죄 우려 지역 순찰 강화



인천경찰청은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특별방범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112 신고가 잦은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분석해 순찰을 강화하고 폐쇄회로(CC)TV와 비상벨 등 방범 시설도 점

검한다.

외국인이 많이 사는 지역 중에서도 범죄 발생 우려 지역을 선별해 지역 자율방범대와 함께 협동 순찰을 한다.

경찰은 특별방법 기간에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나 유흥가 일대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상습 음주 운전자로 확인되면 차량도 압수한다.

또 연말 해넘이·해맞이 행사장 주변 교통 관리를 위해 주최 측과 협의해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연말에 차분하고 평온한 일상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방법 활동을 강화해 체감안전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 김호영 기자



우리금융그룹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우리금융그룹이 함께 응원합니다

우리라는 가로등

앞이 보이지 않아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날

우리금융그룹은
청년들의 한 걸음 앞에서
길을 비추는 가로등이 되겠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기에
도전에 드는 부담은 줄이고
목돈을 모을 기회는 늘려서

어두운 현실에 꿈이 길을 잊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청년들 곁에
우리금융그룹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에프앤아이 우리자산운용
우리벤처파트너스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에프아이에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오타니, 다저스와 10년 9천200억원 계약…역대 최고액

트라우트의 역대 최고 몸값 훌쩍 넘겨…평균연봉 7천만 달러

일본인 야구스타 오타니 쇼헤이(29)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와 10년 7억 달러(약 9천 200억 원)의 초대형 자유계약선수(FA) 계약에 합의했다.

오타니는 9일(현지시간)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나는 다저스를 나의 다음 팀으로 택했다며 “결정을 내리는 데 너무 긴 시간이 걸렸다. 죄송하다”고 썼다.

그는 “지난 6년 동안 응원해주신 (친정팀)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 구단과 팬들, 이번 협상 과정에 참여해주신 각 구단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라며 “다저스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다저스뿐만 아니라 야구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타니의 에이전트인 네즈 밸勒로는 이날 계약 조건이 10년 7억 달러라고 발표했다.



오타니 쇼헤이(CG)

이는 에인절스의 외야수 마이크 트라우트가 2019년에 맺은 MLB 역대 최고 계약 규모를 훌쩍 뛰어넘는다.

트라우트는 당시 에인절스와 12년 4억 2천650만 달러에 계약해 ‘4억 달러’ 시대를 열었다.

오타니는 5억, 6억 달러를 넘어 단숨에 7억 달러의 문을 열어젖혔다.

오타니는 연평균 7천만 달러(924억원)

를 받으며 이 역시 MLB 역대 최고액이다.

이전까지는 투수 맥스 셔저(39), 저스틴 벌랜더(40)가 뉴욕 메츠에서 받았던 4천333만달러가 최고 연봉 기록이었다.

AP통신은 “오타니의 연봉은 볼티모어 오리올스,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선수단

전체 급여를 초과한다”고 전했다.

투타를 겸업하는 오타니는 2013년 뒷

폰햄 파이터스에 입단해 일본 프로야구에서 ‘이도류(二刀流·투타겸업)’ 돌풍을 일으킨 뒤 2018년 에인절스에 입단했다.

오타니는 빅리그 데뷔 첫해인 2018년 타자로서 22홈런, 투수로서 4승을 거두며 아메리칸리그(AL) 신인상을 받았고, 2021년과 2023년 AL 최우수선수(MVP)가 되며 MLB를 평정했다.

그는 두 차례나 ‘민장일치’로 MVP 트로피를 받았다. MLB 최초 기록이었다.

오타니는 불가능의 경지로 여겨졌던 투타 겸업을 수행하며 수없이 많은 ‘최초 기록’을 쏟아냈다.

그는 MLB 6시즌 통산 투수로서 38승 19패, 평균자책점 3.01을 마크했고, 타자로서는 171홈런, 437타점, 통산 타율 0.274를 기록했다. 장타율과 출루율의 합계인 OPS는 0.922를 기록하며 슈퍼스타의 기준인 0.9를 훌쩍 넘겼다.

오타니는 MLB를 넘어 야구 역사를 새로 쓴 선수로 평가받는다.

/ 김병수 기자



‘아시안컵 우승 도전’ 클린스만호,
UAE서 평가전…중동팀 물망

손흥민·이강인 등 해외파

합류해 완전체로 전훈

에서 소집돼 훈련에 들어간다.

국내파 훈련에 참가할 선수의 명단은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의 우승에 도전하는 카타르 아시안컵을 앞두고 중동 팀과 평가전을 치른다. 대한축구협회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내달 6일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전지훈련 캠프에서 평가전을 치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축구협회는 상대를 밟히지는 않았으나

이라크, UAE, 카타르 등 중동 팀이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아시안컵에서 중동 팀의 일격에 허무하게 탈락한 경험이 많은 만큼, 중동 팀을 상대로 확실한 ‘예방주사’를 놓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

한국은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아시안컵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다. 늘 ‘아시아아 죄강’임을 입증하겠다며 정상에 도전했으나 매번 실패했고, 그중 상당수는 중동 팀에 밭목이 잡힌 경우였다.

직전 대회인 2019년 UAE 대회에서 한 국은 카타르에 8강에서 패해 점을 쌌다.

2007년 동남아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이라크에 승부차기로 쟁 우승 꿈을 접어야 했다. 2004년 중국 대회에서는 8강에서 이란, 2000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준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쟁 탈락했다.

1996년 UAE 대회 때는 8강에서 이란에 무려 2-6이라는 점수로 대패하는 악몽을 경험하기도 했다. 클린스만호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은 이달 26일부터 시작한다.

이날 국내파 주요 선수들이 서울 근교

를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한국의 조별리그 1차전 바레인전이 1월 15일에 열리는 만큼,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뮌헨) 등 해외파 선수들은 전지훈련에 처음부터 합류할 수 있을 거로 보인다.

클린스만호는 내달 6일 평가전을 치르고, 10일 결전지인 카타르 도하에 입성한다.

한국의 조별리그 E조 첫 경기인 바레인 전은 내달 15일 오후 8시 30분(이하 한국 시간), 요르단과 2차전은 20일 오후 8시 30분, 말레이시아와 3차전은 25일 오후 8시 30분 킥오프한다.

한편, 클린스만 감독도 이날 귀국해 본격적인 아시안컵 준비를 시작했다.

클린스만 감독은 12일 울산문수축구

경기장, 13일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방문해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ACL) 울산 현대와 가와사키 프론티어(일본), 전북 현대와 방콕 유나이티드(태국)의 경기를 보며 선수들을 점검할 예정

이다.

/ 양승철 기자

미래는 기냥 오지 않는다

“Hellip 미래!”

기다리기만 한다면
준비하지 않는다면
미래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이 될 미래산업
KDB산업은행이
키워가겠습니다

내일이 보고 싶다면 KDB 산업은행

조용필, 감기에도 열창 투혼…‘오빠부대’ 기립 떼창으로 화답

EDM 축제 방불 화려한 레이저쇼 ‘압도’…2시간 걸쳐 록·민요·트로트 넘나들어

“오늘 제가 하기 힘든 노래일 텐데요. 그래도 있는 힘 다 합쳐서 해 보겠습니다.”

‘가왕’(歌王) 조용필은 지난 9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열린 ‘2023 조용필&위대한탄생 투어 콘서트 - 서울’ 공연에서 ‘한오백년’을 부르기며 앞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2일 광주 콘서트 이후 감기에 걸렸다는 그의 말 투에는 비장함마저 서려 있었다.

민요풍 노래에 잘 어울리는 커다란 흰 천이 천장에서 ‘휘리릭’ 내려오고, 조용필이 “한많은 이세상 야속한 님아” 하고 한음 한음을 혼신의 힘으로 토헤내자 1만 관객은 숨도 죽인 채 이를 지켜봤다.

이번 콘서트는 조용필이 서울에서는 지난 5월 잠실주경기장 이후 7개월 만에 여는 자리였다.

같은 해 국내 최대 규모 공연장인 잠실주경기장과 ‘K팝의 성지’로 불리는 KSPO돔에서 잇따라 단독 콘서트를 여는 것은 인기 K팝 아이돌 그룹에도 쉽지 않은 일이다. 더욱이 감기로 컨디션 난조를 겪으면서도 100% 라이브로 2시간 공연을 훌륭히 펼친 것은 그야말로 ‘가왕’이기에 가능해 보였다. 그리고 그를 이렇게 무대로 이끈 것은 뮤지션으로서의 사명감 혹은 오랜 팬들을 보고자 하



열창하는 ‘가왕’ 조용필

는 의지 때문인 듯했다.

조용필은 “저는 올해가 아주 힘든 해였다”면서도 올해가 데뷔 55주년이라는 점을 의식한 듯 “내가 아직 55살이거든. 아직 젊다. 올해가 앞으로 한 20일 남았는데, 아주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가 잡 오랫동안 노래했죠.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라고 말했다.

조용필은 또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주치의가 공연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면서도 “그래도 해야죠. 미국, 영국, 일본 여러 곳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분들도 많

이 있다”고 무대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실제로 이날 노래 도중 마이크를 객석으로 돌려 관객과 호흡하는 모습도 보였다. ‘원조 오빠부대’는 이에 호응해 자리에서 일어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장내가 떠나갈 듯한 떼창으로 화답했다.

공연이 열린 KSPO돔에는 거대한 일(一)자형 무대와 LED 전광판이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내가 암전되자 관객의 열띤 함성과 함께 조용필과 그의 밴드 위대한탄생이 무대에 올랐다. 조용필은 트레이드 마크인 선글라스에 오렌지색과 베이지색이 어우러진 세련된 셔츠 차림으로 등장했다. 그는 직접 기타를 치며 ‘장미꽃 불을 켜요’로 공연의 포문을 열었다.

조용필은 ‘못찾겠다 꾀꼬리’, ‘바람의 노래’, ‘자존심’ 같은 명곡을 잇달아 들려줬고, ‘창밖의 여자’나 ‘돌아와요 부산항에’ 같은 초기 히트곡도 불려줘 팬들을 기쁘게 했다.

이날 무엇보다 좌중을 압도한 것은 거대한 LED 전광판과 조명 장치에서 뿐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레이저쇼였다. 콘서트장은 마치 EDM(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퍼스티벌이나 미디어 파사드를 방불케 하는 시각적 불거리를 퐁아냈다. / 이은정 기자

에이티즈, 美 빌보드 앨범차트 1위…K팝 그룹 일곱 번째

서사·퍼포먼스로 글로벌 인기 상승…중소기획사 가수론 첫 정상



그룹 에이티즈가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월’(THE WORLD EP. FIN: WILL)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다.

10일(현지시간) 공개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에이티즈 2집은 태일러 스위프트의 ‘1989’(테일러스 버전)와 드레이크의 ‘포 올 더 독스’(For All The Dogs) 등 쟁쟁한 음반을 제치고 차트 정상에 올랐다.

‘빌보드 200’은 실물 음반 등 전통적 앨범 판매량, 스트리밍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SEA), 디지털 음원 다운로드 횟수를 앨범 판매량으로 환산한 수치(TEA)를 합산해 앨범 소비량 순위를 산정한다. 에이티즈의 2집은 이번 차트 집계 기간 15만2천장에 해당하는 음

반 판매량(Album Units)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CD와 디지털 앨범 다운로드를 합산한 앨범 판매량이 14만6천장을 차지했다. SEA는 5천500, TEA는 500이었다.

빌보드는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월”은 대부분 한국어로 이뤄져 있다”며 “이 앨범은 ‘빌보드 200’ 1위를 기록한 역대 23번째, 올해 들어서는 일곱 번째 비(非) 영어 앨범”이라고 소개했다.

에이티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팝 그룹으로는 방탄소년단(BTS), 슈퍼엠, 스트레이 키즈,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뉴진스에 이어 일곱 번째다.

에이티즈는 ‘10대들의 모든 것을 담겠다’라는 의미

를 팀명에 담아 지난 2018년 10월 데뷔했다. 이후 ‘트레저’(TREASURE), ‘피버’(FEVER), ‘더 월드’(THE WORLD) 시리즈 음반으로 독특한 서사를 써 내려갔다.

힘 있는 퍼포먼스가 강점인 이들은 지난해 10월 시작한 월드투어로 우리나라 물론 아시아, 유럽, 북미, 남미를 순회하며 40만명을 모으는 등 글로벌 인기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 오윤성 기자

‘원조 배트맨’이 돌아온다 팀 버튼 감독 1989년작 재개봉

팀 버튼 감독이 1989년 내놓은 슈퍼히어로 영화 ‘배트맨’이 오는 13일 재개봉한다고 배급사 웜너브러더스 코리아가 11일 밝혔다.

범죄가 난무하는 고담시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배트맨(마이클 키턴)과 조커(잭 니콜슨)의 대결을 그린 영화다.

개봉 당시 전 세계에서 흥행 수익 4억1천만달러(약 5천400억원)를 올리며 신드롬급 인기를 누렸다.

우울한 히어로와 유쾌한 악당의 대립 구도, 어둡고 기괴한 분위기 등을 내세운 이 작품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배트맨 영화 중 하나로 꼽힌다. 10대로 한정됐던 슈퍼히어로물의 주요 관객층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배트맨’은 DC 코믹스 캐릭터인 배트맨이 등장하는 실사 영화의 ‘원조’ 격이기도 하다.

버튼 감독의 ‘배트맨’ 시리즈 성공 이후 크리스토퍼 놀런 감독의 ‘배트맨 비긴즈’(2005), ‘다크 나이트’(2008), ‘다크나이트 라이즈’(2012) 등이 나왔고 ‘배트맨 대 슈퍼맨: 저스티스의 시작’(2016)을 필두로 한 DC 확장 유니버스 작품들이 잇따라 개봉했다. 원조 배트맨인 키턴은 올해 6월 개봉한 DC 영화 ‘플래시’에서 31년 만에 배트맨으로 재등장하기도 했다. / 신형호 기자



지휘자로 변신한 이영애의

‘마에스트라’ 4%대 시청률로 출발

이영애 주연의 새 드라마 ‘마에스트라’가 4%대 시청률로 출발했다.

10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9시 20분 tvN이 방송한 ‘마

에스트라’는 4.2%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이는 한 주 전까지 tvN이 같은 시간대 방송하던 ‘무인도의 디비’ 첫회 시청률(3.2%)보다 높고, 최고 시청률(9.0%)보다는 낮은 수치다.

첫 방송은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지휘자인 차세음(이영애)이 ‘한강 필하모닉’(한필)이라는 국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로 발탁된 이후 단원들과 갈등하는 과정을 다뤘다. 세음은 첫 연습 후 한필의 악장을 최고참이자 세음의 옛 바이올린 선생님이기도 한 박재만(이정열)에서 오케스트라 내 가장 어린 신참 연주자 이루나(황보름별)로 바꾼다고 통보한다.

단원들은 세음의 일방적이고 전역적인 통보에 반발하나 세음은 고집을 꺾지 않으며 오직 실력만을 강조하며 대립한다. 이에 단원들이 연습실 문을 잠그고 세음과 루나를 배제한 채 연습하는데, 세음은 일부 경기자

/ 김민경 기자

검찰연합일보

www.unionilbo.com

회장·발행인 송원기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여의도동) 175

편집인 최두한 대표전화 1533-1545 / 팩스 : 0508-9192546

인쇄소 아이피디 E-mail unionilbo12@naver.com

청소년보호책임자 서난영 등록번호 서울, 아53015 서울, 기50142

구독광고문의 : 1533-1545 / 구독료 : 월 15,000원,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모든 어린이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유니세프
하지만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가 많습니다.



매월 30,000원이면
매년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
40명이 생존할 수 있습니다.



www.unicef.or.kr (02)737-1004

금융으로 세상을 이롭게



신한은행 IRP

SUPER EFFECT

꿈꾸는 연금
행복한 인생을 위한
카운트다운!

5! 최대 148만 5천원 세금 절약
(연간 900만원 납입 시 세액공제)

4! IRP 연금 전환 시 수수료 면제
(운용/자산관리 수수료 면제, 펀드 보수 등 별도 발생 가능)

3! 퇴직연금 수익률을 관리하는
신한 퇴직연금 고객관리센터

2! '신한 SOL'에서 편하게
평생소득 솔루션 제공

1! 맞춤형 연금상담 공간
'신한 연금라운지' 오픈 (노원점, 일산점)

개인형 IRP 대고객 경품 이벤트

이벤트 내용 이벤트 기간 중 IRP 계좌에 100만원 이상 입금하신 분들 대상 경품 자동 추첨 / 단, 퇴직금 제외, 자동이체 금액 및 계약이전 금액 포함

참여 방법 이벤트 요건 충족 시 자동 응모되며,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경품 지급일까지 정상 계좌 유지 조건에 한함

이벤트 기간 2023.11.1(수) ~ 2023.12.15(금) **당첨자 발표** 2023.12.22(금) *당첨자 개별 MMS 발송

이벤트 경품

LG GRAM 노트북 [14인치] - 2명
아이패드 프로 11형 4세대 - 2명
BBQ 황금올리브 치킨 - 1,000명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 1,000명

■ 경품 지급일까지 이벤트 조건이 유지된 계좌에 한하여 경품을 지급합니다. 경품 발송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고객에 한하여 이벤트가 적용됩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당첨자 발표일에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번호로 개별 MMS 발송됩니다. ■ 연락처가 부정확하여 본인확인, 경품 배송 및 제세공과금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상품권은 타인에게 발송 불가하며, 유효기간은 1개월로 유효기간 경과 후 재발송 불가합니다. ■ 5만원 초과 경품에 대한 제세공과금 22%는 당행에서 부담하며, 모바일 금액상품권 제공 건에 대하여는 2016. 7. 30부터 시행중인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의무에 따라 보고됩니다. ■ 퇴직연금 특별이익은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 2항에 따라 연간 3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되며, 초과시 경품 제공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당사는 해당 퇴직연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 퇴직연금의 종도인출은 근로자 퇴직급여법상 퇴직급여 특별 종도인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종도해지 수수료는 없습니다. ■ 단, 계약기간 만료 전 종도해지 또는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 시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로 과세되는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과세 기준 및 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액공제의 기준과 면세액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계약서를 참조하시거나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원리금비보장 상품은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운용상품 중 투자성 상품은 자산가격변동 등에 따라 원금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준법감시인 사전심사필 제2023-15594-1호(2023.12.04~2023.12.31) ■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23-04460호(2023-12-07~2023-12-15)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